

한국 가구 시장에 나타난 전통식 가구에 관한 연구

- 침실가구의 명칭, 규모, 유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produced Traditional Furniture Shown at the Furniture Markets in Korea

- Focused on the Names, Dimensions, and Types of Bedroom Furniture -

이한나* / Lee, Han-Na
박현옥** / Park, Hyun-Ok

Abstract

Currently, the beauty of Korean traditional furniture has been changed irregularly and even the traditional character has been distorte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s of traditional bedroom-furnitures that are reproduced and sold at the markets in Korea.

The eight companies were selected as a research sample. All those companies also participated at the "Living-design Fair 2003 and 2004". The traditional bedroom-furnitures were the limited products as a research target. As a method of the research, the content analysis such as names, dimensions and types was used.

The results of research were as follows: 1) Using the confused names for a same item, 2) Changes of dimensions, 3) Diversification of the types, 4) Mixing with Japanese style furniture in the Korean traditional furniture market. On the basis of the results, selected eight companies were divided into three types: First, representation of traditions near to the prototype, second, reforming to be suitable to the contemporary life-style, and the last, mixing of Japanese style furniture. This research will make us be concerned about reproduced Korean traditional furniture and established the position to seek for Koreanity. This research expected to be a reference to develop Korean traditional furniture industry, opportunity of verification for reproduced Korean traditional furniture companies and find out the change of life-style through a comparison analysis of the original traditional furniture.

키워드 : 전통가구, 전통식 가구, 일본식가구, 침실가구, 명칭, 규모, 유형, 전통가구시장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웰빙과 퓨전 열풍으로 친환경적인 한국 전통가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생활의 급속한 서구화와 일본강점기라는 외세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 전통가구의 아름다움이 비정상적으로 변형되어 되고 있으며 그 전통성마저도 왜곡되고 있다. 현재 한국 전통가구 시장에서 업체마다 사용하고 있는 가구의 명칭이 통일되지 않고, 한국의 전통가구라고 보기 어려운 가구들이 한국 전통가구라는 이름 하에 제작, 판매되고 있다. 전통가구 시장은 골동품과 전통을 재현한 전통식 가구로 분류되며,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전통가구와의 혼란을 막기 위해 현대에 와서 전통을 재현한 가구를 전통식 가구라 명한다.

한국 전통가구의 전통성에 관한 연구는 의장의 표현 연구¹⁾를 비롯하여 한국 전통가구를 계승한 현대의 전통식 가구를 유형별로 분석하거나²⁾, 한·중·일의 전통가구를 주거문화의 맥락에서 연구³⁾를 하였다. 그러나, 현재 전통가구 시장에 나타난

- 1)최정신, 조선조 가구의 장식적 표현기법과 무늬의 특징, -덴마크와 한국의 민속가구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2호, 1997
한경희, 한국현대가구에 있어서 전통성에 입각한 한국적 이미지의 적용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3호, 1997
- 2)김형대, 한국현대주택에서의 전통계승에 관한 연구, 인덕대논문집 22, 1999
류호정, 한국 현대주택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연대 석사논문, 1999
박소연, 한국 현대 주거용 가구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 연대 석사논문, 2000

* 정희원, 홍익대학교 대학원 공간디자인 전공 박사과정
** 이사, 청운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학과 조교수

전반적인 현상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에 나타나고 있는 전통가구 시장의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식 가구의 명칭⁴⁾의 실태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한다, 명칭이라는 것은 기능, 장식, 생활습관 등이 반영되어 있어 명칭을 통해 가구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칭 조사를 통해서 생활양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규모면에서 전통가구와 전통식 가구의 크기를 비교 분석하여 규모의 변화를 파악한다. 셋째, 전통가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현대에 이르러 등장한 전통식 가구의 유형을 파악하고 넷째, 일본강점기 시대의 강제적인 일본 문화의 유입이 현대 한국 전통가구 시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문제점을 인식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둘째, 전통식가구 업체의 전통계승에 대한 검증의 기회가 될 것이며, 셋째, 전통식 가구를 연구함으로써 생활양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생활양식의 변화로 안방과 사랑방, 부엌 등으로 구분되었던 전통공간이 현대에 이르러 침실, 거실, 주방 등으로 분화되었다. 거실은 한국 전통사회에서 별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지 않았으므로 비교 분석 대상(전통가구) 선정이 용이하지 않고, 주방은 전통공간과 비교하여 변화가 매우 큰 반면, 현재에 생산되고 있는 전통식 가구의 유형이 극히 단순(식탁과 의자)하여 분석대상으로 삼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침실의 경우, 가장 전통공간의 특성을 많이 계승하고 있으면서 전통식 가구의 사용빈도가 높고 분석대상 가구의 유형이 다양하여 본 연구는 침실 가구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업체의 선정은 현대(2000년 이후)에 생산되고 있는 한국 전통식 가구업체 중 일반에 인지도가 높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2003, 2004년도 '리빙디자인페어'에 참여한 업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내용분석으로 현대에 생산되는 전통가구를 자료집, 카탈로그,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차 조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검색 순위가 높은 업체와 가구 전시회에 참여한 업체 중 12개를 선정하였고, 전화면접, 자료수집의 2차 조사 결과의 내용이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8개 업체를 추출하였다. 또한 단순히 기법(결구법 등)만을 따라하거나, 작품이나 소장의 개념이 강한 공예작가의 작품, 소품 등은

제외하였으며,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자연가구(강은식), 노송가구, 사임당, 삼국당, 예가리빙, 장안고가구, 조선가구, 화안가구로 8개 업체이며, 분석대상은 선정된 가구 업체 중 30% 이상이 공통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침대/침상, 장롱, 반닫이, 서랍장, 이층장, 화장대, 문갑, 머릿장/애기장, TV/Video 테이블, 단스(たんす), 콘솔(console), 협탁(night table)으로 12개 품목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한국 전통가구의 종류 및 규모

일반적으로 전통가구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형과 규모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생산된 가구를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시대는 엄격했던 사회제도에 따라 남녀의 공간영역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거처하는 방도 달리 성립되어 안방가구, 사랑방가구 등의 분류가 필연적으로 형성되며 각기 그 양식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⁵⁾

안방가구로는 장, 농, 반닫이 등 의류수납용과 귀중품 보관용의 함과 각계수리, 바느질용 반진그릇, 몸을 단장하는데 쓰이는 빗집, 좌경 등이 있고, 사랑방가구에는 서안, 경상 등의 책상류와 문갑, 사방탁자, 서가, 책장, 연상 등의 문방가구와 각종 서류를 보관하기 위한 문서함, 책을 넣어두는 크고 작은 께, 상비약을 넣어두는 약장, 귀중품을 보관하는 각계수리, 의대를 보관하는 의걸이장 등이 포함된다.⁶⁾

가구의 크기는 온돌방의 좌식 기거양식으로 인해 문갑, 반닫이는 좌척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수장가구인 장, 농, 탁자류는 입척을 기준으로 제작되었는데,⁷⁾ 높이가 높고 큰 가구는 궁중용이나 사찰의 가구들이며 일반사가에서 쓰는 가구들 가운데 높이가 높은 장이나 사방탁자의 경우에도 1700mm를 넘는 예는 없었다.⁸⁾

조선시대 주택의 천정높이는 대개 앉은 사람 위에서 있는 사람의 키를 합한 수치로서 2100mm~2400mm 정도이며⁹⁾, 평균신장은 1640mm인데, 가구의 최고 높이는 1607mm, 최저 890mm, 좌고 750mm¹⁰⁾이다.

5)배만실, 한국목가구의 전통양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8, p.66, p.95, p.114, p.116

안방가구는 화려하고 금구장식도 많으며 채색이 들어간 가구들이 제작되며, 사랑방가구는 선비의 청렴함을 최고로 삼았기 때문에 색채가 희박하고 인위적인 장식을 피하였다.

6)김삼대자, 전통 목가구, 대원사, 1994, p.11

7)김정근, 한국 근대가구의 변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3호, 1997

8)김삼대자, 위의 책, 1994, p.9

9)박영순 외,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1998, p.86

3)김국선, 한·중·일 주거문화 맥락에서 본 전통가구 디자인 특성 비교 연구, 연대 박사논문, 2004

4)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부르는 말

조선시대 이층장의 평균크기는 1070mm, 세로 502mm, 높이 1359mm이었는데, 근대 장롱의 평균수치는 가로 834mm, 세로 436mm, 높이 1622mm이었으며, 후반기에 나타난 장롱의 경우 가로 935mm, 세로 430mm, 높이 1820mm로 나타났다.¹¹⁾

다음은 가장 구체적으로 전통가구의 크기를 제시한 김삼대자의 「전통 목가구」에서 소개된 것 중 안방·사랑방가구와 관련된 대표적인 가구인 반닫이류, 장류, 농류, 평상, 문갑류의 크기로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삼았다<표 1>. 이 중 평상은 침실공간(안방과 사랑방)에서 주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나¹²⁾, 현대의 침실에서 침대의 대용으로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어 조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표 1> 전통가구의 크기*

종류	크기(폭 X 깊이 X 높이) 단위mm	소장처
반닫이류	960 X 470 X 565 1065 X 470 X 910 1386 X 385 X 665 (원앙) 733 X 366 X 428 (개구멍)	국립민속박물관
	870 X 550 X 975 (강화)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850 X 450 X 850 (평안도 송송이)	개인
	924 X 465 X 503(제주)	제주자연사박물관
반닫이장	1035 X 375 X 990	김필환
장류	원앙장	1050 X 590 X 1510 안성철
	이층장	1010 X 355 X 830 정해동
		950 X 430 X 1320 개인
	머릿장	490 X 290 X 390 개인
	이불장	780 X 465 X 540 고려대학교박물관
	3층장	1042 X 513 X 1652 국립민속박물관
		1120 X 580 X 1745 지응택
		998 X 540 X 1265 고려대학교박물관
	의결이장	837 X 478 X 1645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855 X 465 X 1675 국립민속박물관
금침장	963 X 493 X 1810 국립중앙박물관	
농류	농	748 X 345 X 1038 국립민속박물관
	수장농	810 X 350 X 970 개인
평상	평상	2230 X 900 X 510 고려대학교박물관
	쌍문갑	900 X 320 X 420 개인
문갑	단문갑	1024 X 408 X 530 고려대학교박물관
	문갑	840 X 380 X 400 개인

* 「전통 목가구」(김삼대자)에 소개된 전통가구의 크기를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임

2.2. 한국 전통가구의 재료 및 조형성

한국의 전통가구에겐 자연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조형적 미의식과 정신적 가치체계가 잘 반영되어 있으며, 나무의 질감을 자연 그대로 살린 나뭇결의 아름다움, 못을 사용하지 않는

10) 배만실, 앞의 책, 1988, pp.70-71

11) 김정근, 한국 근대가구의 변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3호, 1997, p.53

12) 평상을 겨울에는 방, 여름에는 누마루에 두었으며 때에 따라 밖에서도 사용하였다.(김삼대자, 전통목가구, 대원사, 1994.), p.63

짜임과 이음기법, 기능적인 구조, 그리고 소탈하고 과장됨이 없는 장식 등은 한국전통가구의 주된 특성이다.¹³⁾

가구의 재료로는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주목, 비자나무, 감나무, 은행나무, 호두나무, 가래나무, 배나무, 오동나무, 개오동나무, 느티나무, 느릅나무, 회화나무, 엄나무, 박달나무, 자작나무, 오리나무, 벗나무, 피나무, 물푸레나무, 산뽕나무, 대추나무, 버드나무 등이며 그 가운데 소나무가 가장 많이 쓰였다.¹⁴⁾

장식기법으로는 나뭇결 보이기, 상감, 옷칠, 금구장식, 양각, 음각, 투각¹⁵⁾이 사용되었고, 장식문양은 화려하지 않고 지나친 장식도 삼갔다. 즉, 자연현상에서 장수를 염원하였고 동식물 무늬에서 오복을 갖춘 상서로운 형태를 찾았다. 길상어문에서 수복강령과 부귀다남을 염원하는 꿈을 담고 있으며, 자연문, 동물문, 식물문, 길상어문, 관념문 등으로 구분된다.¹⁶⁾

2.3. 한국 전통가구의 근대화

김정근(1997)의 연구에 의하면 근대가구의 범위는 개항 이후부터 1945년까지이며, 이 시기에 혼수장만이 규범화되고 이부자리의 사치로 인해 수장가구의 대형화가 이루어져 새로운 가구 양식인 장롱이 등장하였고, 옷장, 이불장, 서랍장 등 세분화되는 근대가구 발달의 계기가 되었다.

1930년 대 이후 퇴색하기 시작한 유교사상이 주택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남성용 공간인 사랑방의 쇠퇴로 안방은 지금까지 부인을 위한 공간에서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기능과 역할이 변화하였고 조선시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 제작되어 안방과 사랑방에 각각 배치되었던 것과 달리 근대 가구는 그 구분이 사라지고 필요한 기능에 따라 제작되었다. 그 변화의 대표적인 가구가 의결이장으로서 조선시대에는 사랑방에서 사용되었으나, 근대에 와서는 안방용으로 제작되었다.

장롱의 경우, 초기에는 화려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시도로 장롱의 입면장식이 다채로워졌으며, 후반기에는 장롱에 합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거울과 유리를 장롱 내부와 외부에 부착하였다. 또한 혼수에 화장품이 등장하면서 조선시대 상류층에서만 사용되던 거울이나 경대가 서민층에게까지 사용이 넓어져 화장품을 진열하듯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 선반을 가진 화장대가 등장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근대 가구 양식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수장기능의 확대와 실용주의적인 편리한 기능성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증시되었고 규모의 확대, 자유로운 입면구성, 외래 장식의 영향, 전통가구의 기능 복합과 확장 및 새로운 가구의 출현이다. 대표적 가구는 장롱, 의결이

13) 박영순 외, 앞의 책, p.86

14) 김삼대자, 앞의 책, p.105

15) 최정신, 조선조 가구의 장식적 표현기법과 무늬의 특징, - 덴마크와 한국의 민속가구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2호, 1997, pp.60-61

16) 배만실, 앞의 책, p.154

장, 장과 화장대라 할 수 있다.17)

2.4. 일본 전통가구의 특징

대표적인 일본 전통가구는 에도·메이지 시대의 것으로 가구 재료는 노송나무, 삼나무 등을 주로 사용하였고, 구조이음 짜임은 판재와 각재를 덧이음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도장마감으로는 투명도장과 마끼에 기법, 자연물과 동식물의 문양, 금구장식으로는 구보 보강과 양각 및 투각을 하였다. 전반적인 특징은 선종사상의 실리주의에 입각한 기능성과 규격성이 강조되어 조금은 투박하고 기하학적인 면구성에 의한 조형미를 추구하였고, 쇼지의 기하학적 패턴구성이 가구의 전면에 적극 반영되었다. 공간의 형성에 있어서 의도된 비대칭과 인위적으로 축소된 공간의 구조체 처리로 단순미의 공간 가변성을 보여준다. 구조적으로는 이동성이 많은 좌식형 가구가 대부분으로 공간 가변성에 따라 바퀴가 부착되기도 하며, 형태적으로도 비대칭적 성향이 매우 강하고 무기교성과 장식성 서랍형으로 된 수납가구와 공간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계단장이 독특하며, 다다미라는 독자적 바닥재의 탄력성에 대응하는 안정적 배치를 위하여 전통가구의 다리가 형성되지 않다. 재료상의 특성은 넓은 판재와 좁은 각재를 덧붙이는 구조, 실리주의에 입각한 기능성 강조, 자연의 목리무늬 선호, 금, 은가루를 사용하는 마끼에 기법이 있다18).

3. 한국 전통식 가구 명칭의 실태조사 분석

현재 업체별로 웹 사이트 또는 제품 카탈로그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체계는 매우 다양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품목별로 분류하고 있는 업체는 8개 업체 중 6개 업체(75%)로서 반단이, 서랍장, 문갑, 탁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간별 분류는 2개 업체(25%)로서 거실, 침실, 주방, 안방이다. 그 중 한 업체(12.5%)에서는 테마별로 신혼가구, 교체가구, 공예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동일한 업체에서도 분류체계에 혼란이 있어 품목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았고, 동일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되지 않은 명칭의 사용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탁자와 테이블의 모호한 구분(장안 고가구)마저도 있다. 그 중 삼국당은 머릿장과 머리장을 혼용하고 있으며, 가장 두드러지게 혼용되고 있는 품목은 반단이(반단이, 반다지)와 의걸이장(의걸이장, 의거리장)이며, 이러한 명칭의 혼용은 국내의 학자들에게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17)김정근, 한국 근대가구의 변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3호, 1997, pp.50-59

18)김국선, 한·중·일 주거문화 맥락에서 본 전통가구 디자인 특성 비교 연구, 연대 박사논문, 2004

<표 2>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의 예

명칭	실태	사례
반단이	반다지	김정근(1997), 삼국당, 사임당
	의걸이장	배만실, 김정근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명명한 사례수가 높은 명칭으로 '김삼대자'와 '박영순 외'의 명칭을 따른다.

분석의 대상인 품목의 선정은 침실과 관련이 높은 가구로 한정하면서 전체 8개 업체 중 30% 이상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업체와 선정된 품목은 다음과 같다. 침대/침상 5개사(강은식, 노송, 사임당, 삼국당, 예가), 장롱 5개사(강은식, 노송, 사임당, 예가, 조선), 이층장 5개사(삼국당, 예가, 장안, 조선, 화안), 서랍장(8개사 전부), 화장대 4개사(강은식, 사임당, 삼국당, 예가), 협탁 3개사(사임당, 삼국당, 예가), 문갑 5개사(사임당, 삼국당, 예가, 장안, 화안), 머릿장/애기장 6개사(사임당, 삼국당, 예가, 장안, 조선, 화안), 반단이 5개사(사임당, 삼국당, 예가, 장안, 조선), TV/Video 테이블 4개사(삼국당, 장안, 조선, 예가), 단스 3개사(삼국당, 장안, 조선), 콘솔 3개사(삼국당, 장안, 예가)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업체별 분류체계에 따라 정리하였고, 사용된 모든 명칭과 분류체계는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표기하였다<표 3>.

<표 3> 업체별 전통식 가구 분류체계와 명칭

구분 업체명	분류체계	생산품목	관련도
강은식 자연 가구	침실가구	조명, 침대, 장롱, 화장대, 수납장식장, 서랍장, 거울	★★★
	거실가구	소파, TV거실장식대, CD장, 부부테이블 세트, 좌탁, 의자, 전화대, 장식장, 수납함, 수납장 세트, 거실장식장 세트, 수납장식장, 수납장 세트, 거실 장식장 세트	★★
	주방가구	식탁세트, 이동식홈바, 부엌보조테이블,	★
	기타	잠자 꽃이, 옷걸이	★★
노송 가구	신혼가구	장롱, 서랍장, 거울, 침대, 협탁,	★★★
	돌침대	돌침대	★★★
	소파	1인용·3인용 의자	★
	거실장	장롱	★
	교체가구	장롱	★★★
	공예가구	장롱	★★★
사임당	안방문화	장롱, 사탁, 문갑, 화장대, 경상, 교자상, 애기장, 이층능, 홈파, 팔각상, 3층능, 혼수함	★★★
	침실문화	침대, 의걸이, 협탁, 화장대, 스톨, 서랍장, 평상, 머릿장, 반단이	★★★
	주방문화	식탁, 의자, 찬장, 반다지, 왜곤, 애기장	★
예가 리빙	거실문화	소파, 교자상, 의자, 장식대, 평상, 양주장, 장식장, 협탁자	★★
	가구별 분류체계 없음	침상, 이층장, 삼층능, 약장, 머릿장, 서랍장, 콘솔, 화장대, 불박이장, 반단이장, 문갑(TV장), 소파 & 협탁, 사방탁자	★★★
화안 가구	수납가구	책장, 2층장, 문갑, 머릿장, 약장, 갑계수리	★★★
	탁자	서탁, 장상, 문갑, 각 종 상(床)	★
	기타	문서함, 의개(전통옷걸이), 문 고임목, 사방탁자, 좌등, 경대, 장경, 장의자, 고비	★★

침실관련가구 관련도 : ★★★ 높음, ★★ 보통, ★ 낮음

<표 3> 업체별 전통식 가구 분류체계와 명칭(계속)

구분 업체명	분류체계	생산물목	관련도
장안 고가구	반닫이	귀반닫이, 신주거북반닫이, 삼강반닫이, 송송이반닫이, 서랍반닫이, 반닫이	★★★
	이층장	이층장, 삼층전주장, 반닫이전주장, 무쇠전주장, 양주장, TV장, 서랍장, 머릿장, 장식장, 학자장	★★★
	경상/서안/문갑	경상	★★★
	약장	약장	★
	머릿장	갑게수리머릿장, 비밀호리병머릿장, 회머릿장, 화초머릿장, 무쇠열서랍머릿장, 창살머릿장, 죽동열장	★★★
	서랍장	귀갑게수리TV장, 귀창살TV장, 귀TV장, 조선단스, 양주장, 오동삼단스, 책장, 서랍장, 계단단스, 계단서랍장, 서랍단스, 서류장, 구루미단스, 물로초책장	★★★
	테이블/의자/뒤통	원색탁자뒤통, 부엌탁자, 뷔페테이블, 흙빠, END 테이블, 전화다이, 콘솔테이블	★
	탁자	소탁자, 창살콘솔, 사각4인식탁, 무쇠천탁, 도자기탁자, 사방탁자	★
	돈패/함	가함, 함 set, 먹감함, 웨딩함, 서류함, 붓통	★★
	소품	등(燈), 경대, 진열장, 가동, 만자상, 할아리	★★
	Antique Chest	Blanket Chest, Long Table, Side Table, Desk, Chest on Chest, Rice Chest, Headside Chest, Book Chest	★★★
	Wedding Chest	Hope Chest, Wedding Box	★★
	chosun (조선)	Book Chest	Book Chest, Curio Stand
Bar		Bar	★
Table		Hibachi Table, Painted Coffe Table, Buffer Table, Table, Foot Locker, Scholar's Table, Table	★
Kitchen Chest		China Cabinet, Kitchen Chest, Glass Cabinet, Corner Cabinet	★
Lamp		Lamp	★★
Silverware Chest		Silverware Chest	★
Desk		Secretary, Desk	★
Dansu		Wheel Dansu, Dnasu	★★★
Wardrobe		Wardrobe, Dresser	★★★
Hope Chest		Hope Chest, Wedding Box	★★
File Cabinet		Drawer Chest, File Cabinet	★
End Table		End Table, Jeon-ju Chest, Ox-Horn 2 Story Chest, Ox-Horn Headside Chest, Bridal Chest	★★★
Step Chest		Step Chest	★★
Medicine Chest		Medicine Chest, Tape Chest, Folding Medicine Chest	★
Boxes		Scroll Box, Letter Box, Mirror Box, Hat Box, Swan Basket	★★
TV Chest		TV Chest, Stereo Chest	★★
삼국당		협탁/소파 테이블	협테이블, 서랍장, 테이블, 엔드테이블, 허버처, 사인교, 경상, 구루미단스, 소파, 의자, CD장
	약장	약장	★
	서랍장	서랍장, 사방탁자, 머릿장, 계단서랍장, 전주장, 2층장, 책장	★★★
	책장/책상	전주장, 머리장, 책장,	★
	TV장	엔드테이블, TV/Video 테이블, 책장, 머릿장, TV테이블, 뷔페테이블, 협탁, 콘솔테이블, TV계단, TV미조아단스, 전주이층장, 단스, 반닫이, 평상, 서류장,	★★
	머리장	(학자장, 전주장, 기타) 엔드테이블, 구루미단스, 콘솔, 단스, 일본식함, 화각장, 반다지, 머리장, 전주장, 이층장, 서랍장,	★★★
	계단단스	계단단스	★★
거실/누림/가구	(흙바, 단스, 진열장, 사방탁자) 탁자, 흙바, 유리진열장, 사방탁자, 구루미단스, 부엌장, 코너장, 미조아단스, 문갑, 사방공간탁자	★	

침실관련가구 관련도 : ★★★ 높음, ★★ 보통, ★ 낮음

업체별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반닫이, 장, 농, 사방탁자, 문갑, 평상 등이다. 둘째, 생활양식을 반영한 명칭으로 서랍장, 협탁, 양주장, TV장, 흙바, CD장, 코너장 등이며, 셋째, 영문식 표기로서 명칭 자체를 영문으로 표기한 것을 포함하여 엔드테이블, 뷔페 테이블, 콘솔 등이 있고, 넷째, 일본의 영향으로 한국 전통 가구 시장에 등장한 단스¹⁹⁾, 히바치²⁰⁾ 등이 있었다²¹⁾. 그 외 기타 및 소품류에 해당하는 고비, 잡지꽂이, 함류 등을 들 수 있다. 같은 분류체계 내에서도 무늬, 기능 등에 의해서 명칭을 세분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머릿장의 경우 무늬에 의해서 화초머릿장, 창살머릿장, 기능에 의해 서랍머릿장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반닫이의 경우 잠자리반닫이, 시집가는 날 반닫이, 서랍반닫이 등이 있다.

4. 전통식가구의 규모와 유형의 비교 분석

4.1. 규모

각 품목을 분석하는 방법은 첫째, 공간에 서서 바라보는 입면도에 입각하여 높이와 폭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평상의 경우는 누워서 사용하는 행태에 준거하여 평면도를 기준으로 깊이와 폭을 비교하였다. 둘째, 폭, 깊이, 높이의 평균치를 비교하여 깊이와 함께 전체적인 규모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분석대상 중 TV/Video 테이블, 콘솔²²⁾, 협탁²³⁾은 전통가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종류이므로 규모 비교에서는 제외시켰다.

다음은 김삼대자의 「전통 목가구」에 소개된 전통가구와 현대에 생산되고 있는 전통식 가구와의 크기 비교이며, 규모의 변화는 전(全) 분석 대상 8개 업체가 모두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업체에 대한 표기는 생략하였다<표 4>.

- 19) 단스(たんす): [단사(簞笥)] tansu, 명사. 옷장, 장롱.
그 생김과 기능에 따라 바퀴가 달린 것은 구루미단스(くるまたんす), 식기나 차기를 넣는 것은 미즈야 단스(みずやたんす)라 하였다.
미즈야(みずや): 명사. [수옥(水屋)] mizuya의 사전적 의미는
① (신사나 절에서) 참배인이 손을 씻는 곳 = 미타らし mitarasi,
② 다실(茶室)에 딸린 차 그릇을 씻는 곳, ③ 음료수를 파는 사람,
④ 여름철에, 빙수 따위를 파는 가게, ⑤ (식기·차기(茶器)를 넣는) 장롱 같은 가구; 찻장, ⑥ 저택 안쪽에 성토를 하여 높게 하고 지은, 홍수 때 피난하기 위한 이층 광, 본 연구와 관련된 의미는 ②와 ⑤이다.
- 20) 히바치(ひばち). 화로가 있는 테이블
21) 일본의 전통적인 조형방식 및 특징을 표현한 가구를 일본식 가구로 구분한다.
22) 콘솔(console): 명사.
① 건축에서 소용돌이꼴 까치발
② 파이프로르간의 연주대(臺)(건반·페달 포함)
③ (전축·텔레비전 등의) 콘솔형 캐비닛 = CONSOLE TABLE
④ 컴퓨터를 제어·감시하기 위한 조종대 또는 제어 탁자.
본 연구와 관련된 의미는 ③으로 침실과 거실에서 장식과 수납용으로 사용된다.
23) 침대 곁에 두는 작은 탁자로 night table이라고도 한다.

<표 4> 전통가구와 전통식 가구의 규모 비교 (단위 mm)

가구	크기 비교표	내용(폭 X 깊이 X 높이)	
침상 / 침대		전통*	2230 X 900 X 510
		전통식*	평균치: 2171 X 1446 X 614 최소치: 2020 X 980 X 620 최대치: 2200 X 1640 X 1100
		특징	* 높이의 경우, 침상의 난간 및 침대 헤드보드의 높이 폭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깊이가 매우 다양하게 확대
장롱류		전통	평균치: 846 X 472 X 1660
		전통식**	평균치: 1023 X 684 X 2148 최소치: 950 X 570 X 1800 최대치: 1200 X 738 X 2080
		특징	** 폭의 경우, 세트를 이루고 있는 장롱의 폭 X 1/2의 값 폭과 높이의 규모 확대
반닫이		전통	평균치: 970 X 455 X 699
		전통식	평균치: 767 X 411 X 668 최소치: 300 X 260 X 640 최대치: 1285 X 450 X 1030
		특징	다양한 규모에서 중간적인 규모로 변화
이층장		전통	평균치: 980 X 393 X 1075
		전통식	평균치: 705 X 374 X 1004 최소치: 470 X 395 X 790 최대치: 1090 X 550 X 1320
		특징	폭과 높이의 규모 축소
머릿장		전통	490 X 290 X 390
		전통식	평균치: 696 X 374 X 688 최소치: 550 X 380 X 590 최대치: 1000 X 470 X 910
		특징	폭과 높이의 규모 확대
문갑		전통	평균치: 921 X 369 X 450
		전통식	평균치: 1077 X 301 X 357 최소치: 620 X 270 X 360 최대치: 1500 X 260 X 390
		특징	폭의 규모는 다양화 높이의 규모는 축소

● 전통 ○ 전통식

분석을 통한 각 품목의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침상

전통식 가구가 전통가구에 비해서 폭의 규모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으나 깊이는 매우 다양하게 확대되었는데, 평상이 조선 시대에는 휴식이나 담소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침대의 기능을 하고 있어 현대의 일반적인 침대의 규격인 더블, 퀸 사이즈에 맞추어 생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장롱

신체의 성장과 더불어 현대 공간의 규모가 천정고가 전통공간에 비해서 높아지고 넓어지고 있는 현상과 함께 폭, 깊이, 높이가 모두 확대되었으며(전통 ; 846 X 472 X 1660, 전통식 ; 1023 X 684 X 2148), 업체별로 생산되는 치수의 유형도 불박이 형태로 실제 공간에 맞춤으로 주문 제작하는 경우(예가리빙), 단품으로 생산하는 경우(자연, 사임당, 조선)에는 950mm에서 1200mm까지 볼 수 있었으며, 10자에서 12자의 규모로 3개의 장이 세트를 이루고 있는 경우(노송, 사임당)도 있었다. 깊이의 확대는 근대 이후 발생한 수납기능의 확대(24)와 접이식으로 의복을 수납하는 방식에서 옷걸이를 사용하여 수납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것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 반닫이

전통가구에 비해 중간적 규모(전통 ; 970 X 455 X 699, 전통식 ; 767 X 411 X 668)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통 반닫이의 경우 각 지방별로 특색 있게 다양한 크기로 생산되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지방색을 나타내기 보다는 평수라고 하는 방의 크기에 대한 반영과 수납기능이 주목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 이르러서는 수납기능과 함께 화려한 장식과 다양한 생김과 명칭으로 고급화되어 장식의 기능이 매우 강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4) 이층장

다양한 규모로 생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깊이의 변화는 거의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폭과 높이의 규모가 전통의 것에 비해 축소(전통; 980 X 393 X 1075, 전통식; 705 X 374 X 1004)되고 있다. 이층장의 경우도 반닫이의 경우처럼 장식적인 역할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5) 머릿장

전체적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전통 ; 490 X 290 X 390, 전통식 ; 696 X 374 X 688). 입식위주의 생활방식으로의 변화, 수납기능의 강화로 해석된다.

(6) 문갑

폭의 규모는 다양화되고 있으나 높이는 축소(전통; 921 X 369 X 450, 전통식; 1077 X 301 X 357)되었다. 전통공간의 평좌 생활에 맞게 책상 높이 또는 머슴대의 높이를 기준으로 제작되었던 전통 문갑과는 달리 머슴대가 사라진 현대 공간에서는 좌식 수납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천판 위의 진열대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전통가구는 1700mm를 넘지 않았으나, 현대에는 2000mm를 넘는 전통식 가구(장롱)가 등장한 반면 폭이나 깊이가 축소된 전통식 가구(이층장, 문갑, 반닫이 등)도 제작되고 있다. 머리장, 장롱, 평상처럼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는 입식 위

24)김정근, 한국 근대가구의 변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3호, 1997, pp.50-59

주로 변화된 공간에 전통식 가구의 규모가 적용되고, 수납기능의 강화에 의한 변화이며, 규모가 축소된 경우는 서구식 가구의 비례에 익숙해진 변화, 주변 가구와의 조화를 이루면서 장식의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2. 유형의 다양화

앞서 논의된 <표 3>업체별 전통식 가구 분류체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수납 위주의 전통가구에서 장식적인 기능이 더해지면서 전통식 가구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침실에서 사용되는 전통식 가구의 유형은 불박이장, 장롱, 서랍장, 화장대, 문갑, 협탁, 침대/침상, 콘솔, 전화받침대, TV 테이블 등이다.

조선시대 침실공간이었던 안방과 사랑방 가구가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면서 그 유형에 변화가 있었는데, 사랑방 가구 중 문방가구는 근대 이후 거실과 서재로 장소를 이동하여 사용되고 있고, 의결이장이나 문갑 등은 안방으로 통합되어 침실공간에서 사용되고 있다. 근대 이후 서랍장, 화장대, 장롱이 등장하였으며, 현대 이후 서구식 생활양식의 변화로 침대, 협탁, 콘솔, TV 테이블 등장하였다<표 5>.










<표 5> 시기별 나타난 침실 가구의 유형

가구 유형	조선시대	근대	현대 이후
장, 농	→		
반닫이	→	→	→
머릿장	→	→	→
이층장, 삼층장	→	→	→
문갑	→	→	→
의결이장	→	→	→
연상, 경상	→	→	→
책장	→	→	→
약장	→	→	→
서랍장		→	→
화장대		→	→
장롱		→	→
침대, 침상			→
불박이장			→
협탁			→
콘솔			→
TV/Video 테이블			→
전화 받침대			→

다양화된 전통식 가구의 유형은 첫째, 전통가구를 계승하고 있는 경우(반닫이, 이층장, 문갑)와 둘째, 생활양식의 변화로 생겨난 가구 유형(장롱, 불박이장, 침대/침상, 서랍장, TV/Video 테이블)이다. 셋째, 표현 방식은 전통적이지만 명칭에 있어서 서구식 가구(콘솔, 협탁), 넷째 일본식 가구(단스, 히바치, 서랍장)로 분류할 수 있다<표 6>. 일본식 가구는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 절에서 논의한다.

25)김정근, 한국 근대가구의 변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3호, 1997, pp.50-59













<표 6> 다양화된 가구의 유형

유형	가구의 이미지와 명칭		업체
전통 계승	 반닫이	 이층장	화안 삼예가 장안 조선 사임
	 문갑		
변화	 TV/Video 테이블	 화장대	자연 사임 노승 삼국 장안 조선 예가
	 서랍장	 장롱	
서구식	 콘솔	 협탁	사임 삼국 장안 조선 예가
일본식	<표 7> 참조		삼국 장안 조선

4.3. 일본식 가구의 잔지

근대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계단식, 바퀴가 달린 수납가구인 단스와 화로가 결합된 히바치 등의 완전한 일본식 전통가구의 취급이다<표 7>. 서랍장의 경우는 두 가지 양상으로

<표 7> 일본식 가구 사용의 예

명칭	가구의 유형	업체
단스 (たんす)	  	삼국 장안 조선
계단단스	  	
히바치 (히바치)	  	
서랍장	  	

나타나고 있는데, 완전한 일본식의 표현과 생활양식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의한 기능적인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전통적인 조형미가 어우러진 장식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나 차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

위 결과는 본 연구를 통해 전통가구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료되는 것으로 한국 전통 가구의 대칭적인 전통 조형미를 무시한 비대칭과 극도로 절제된 간결한 외형이 두드러진 전형적인 일본식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부족한 일반인들과 외국인에게 한국전통고가구라는 이름으로 전시 판매되고 있어 업체들의 적극적인 쇄신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5. 결론

이상으로 현대에 등장하는 전통식 가구의 실태를 명칭과 규모 및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전통식 가구의 혼란스러운 명칭의 사용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반닫이, 의걸이장이며, 정리되지 않은 명칭의 사용은 학계는 물론이고, 가구산업계, 일반인, 한국 전통 문화에 관심이 깊은 외국인에게 혼란을 주게 되므로 표준화된 명칭의 제정과 공표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명칭 사용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통의 명칭을 그대로 계승하거나, 변화된 생활양식의 반영, 서구화에 의한 명칭, 일본식 명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생활양식의 변화에 의한 소비자의 요구 등이 반영된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규모의 변화이다.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는 입식 위주의 변화된 공간에 전통식 가구 규모의 적용, 수납기능의 강화에 의한 변화이며, 규모가 축소된 경우는 다양한 현대식 가구의 비례에 익숙해진 변화, 주변 가구와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장식의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전통식 가구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서구식 생활로 우리의 생활양식이 변화하고 있고 서구식 가구의 유입으로 인한 것이며, 변화의 흐름이 서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현대에 새롭게 등장한 가구들은 콘솔, 협탁, TV 테이블 등이 대표적이다.

넷째, 일본에 의해서 강요된 문화의 영향과 인식의 부족으로 일본식 가구를 한국 전통식 가구로 취급하는 현상이다. 히바치, 단스, 계단식 수납장, 서랍장 등은 근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서랍장의 경우는 근대 이후 일본의 영향과 함께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로 지속적인 변화과정을 거쳐 한국 전통적인 조형미가 결부된 것도 생산되고 있어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전통을 계승한 8개 업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가구의 전통성을 원형에 가깝게 계승하고 있

는 업체는 화안가구이며, 서구식 가구의 전통적 표현을 포함하여 전통성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변형된 디자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전통을 개량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노송가구, 자연가구, 사임당, 예가리빙이고, 일본식 가구의 혼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업체는 삼국당, 장안고가구, 조선가구이다.

<표 8> 전통식 가구 업체의 유형분류

유형	가구 업체
원형의 계승	화안
개량	노송가구, 자연가구, 사임당, 예가리빙
일본식 가구의 혼용	삼국당, 장안고가구, 조선가구

본 연구는 제한된 업체와 침실가구의 명칭과 규모 및 유형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지만 전통식 가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각 전통식 가구의 특징이나 변화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한국성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권영길,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 국제, 2001
2. 김삼대자, 전통목가구, 대원사, 1997
3. 박영순 외,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1998
4. 배만실, 한국 목가구의 전통양식, 이화여대출판부, 1997
5. 배만실, 의장미술사, 기문당, 1994
6. 윤장섭, 일본의 건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7. 김국선, 한·중·일 주거문화 맥락에서 본 전통가구 디자인 특성 비교 연구, 연대 박사논문, 2004
8. 김정근, 한국 근대가구의 변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3호, 1997
9. 김형대, 한국현대주택에서의 전통계승에 관한 연구, 인덕대논문집 22, 1999
10. 류호정, 한국 현대주택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연대 석사논문, 1999
11. 박소연, 한국 현대 주거용 가구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 연대 석사논문, 2000
12. 박영순·전정운, 조선조 가구에 나타난 의장요소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29권 2호, 1991
13. 최정신, 조선조 가구의 장식적 표현기법과 무늬의 특징, -테마크와 한국의 민속가구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2호, 1997
14. 한경희, 한국현대가구에 있어서 전통성에 입각한 한국적 이미지의 적용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3호, 1997
15. 홍민정, 일본·에도 메이지 시대의 목가구에 관한 연구, 홍대 석사논문, 2000
16. 황봉익, 조선조시대 의걸이 장에 관한 연구, 홍대 석사논문, 1989
17. 문선옥, 현대가구에 내재된 장식의 역할, 가구저널, 2003. 11
18. www.samkookdang.com
19. www.janganantique.com/korea/product_s_detail.asp?g_part=ss
20. http://cho-sun.co.kr
21. www.whaan.com
22. www.e-yega.com
23. www.saimdanggagu.co.kr
24. www.craft42.com/product

<접수 : 2004. 6. 25>